

## 근대 ‘국민(민족)국가’ 와 왕권

°nation-state: 1789년 혁명 이후의 프랑스에서 출발. 프러시아가 ‘nation’ 에 종족적 의미를 강하게 부여한 이후 동양권에서는 ‘민족’ 으로 번역.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‘민족’ 이라는 말이 ‘국민’ 을 대체.

°개혁운동가들이 지향한 ‘근대 국민국가’: ‘왕조국가’ 가 극복된 모습

°조선은 500년간 중앙집권적 왕조 국가의 역사와 경험이 有

-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운영은 강고한 정치문화
- 근대국가로의 이행에서 전통적인 왕과 왕권은 근대화에 저해되는 존재인가?
- 전제적인 국왕의 주도 하에서도 근대국가 수립이 가능한가?

°1880~1894년 고종의 친정체제

- 전제군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
- 1880년대부터 왕실이 주도하는 근대 국민국가를 추구
- 개혁주도를 위하여 정부의 기간조직이 아닌 궁궐 내의 특별 기구 ‘통리기무아문-통리군국사무아문-내무부’ 로 이어졌던 조직을 통하여 직접 관장
- 근대화사업은 실질적인 성과가 크지 못하였음
- 국가기구의 공론화라는 근대국가 이행의 과제를 역행

°1896년 2월 아관파천 <-- 갑오개혁 중단

°1897년 10월 대한제국 수립, 광무개혁

°「대한국국제」 반포: 최초의 근대적 헌법

°「대한국국제」의 황제권 명시:

“최고의 권력” 스스로 자신을 근대법적으로 규정

°대한제국 국가기구는 전제군주제 수립과 더불어 궁내부가 의정부를 압도할 만큼 방대한 기구로 확대--> 친정체제 강화

°1880년대 측근 중심의 국정 운영 양상이 재현

°국기 기구의 이원화

ex) 원수부-군부, 경무청-경위원, 예식원-외부 등

°불안정한 정치권력 구조

--> 국가가 지녀야 할 공공적 성격↓, 황제가 국가기구를 사유화

°1894-1895년 갑오개혁, 독립협회운동 vs 왕권(황제권)

--> 국가 최고 권력을 어디에 둘 것인가,

--> 근대 국민국가 수립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동질적

°관료 중심을 지향하는 세력조차도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서의 왕권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수 없었음

°1905년 이후 여러 정치세력의 입헌군주제 구상은 결코 황제권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황제권의 사적 성격을 비판하고 공공적 성격을 회복하고자 한 것